<인문사회계열> 문제지

	학 교 명	
	성 명	
	수험번호	1 9 1 0 8 P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모의고사

□ 문제수 및 고사 시간

문제수	시 간	배 점
3	100분	[문제 1]은 총 점수의 34%, [문제 2], [문제 3]은 각각 33%

□ 수험생 유의사항

- 답안지에 모집단위, 성명, 수험번호, 주민번호를 정확히 명기
- 계산기와 통신기기 등은 휴대할 수 없으며, 휴대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
- 답안지는 1매만 사용해야 하며, 2매 사용 시 무효(0점) 처리
-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
  (볼펜, 사인펜 사용 가능. **연필, 샤프,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불가**)
- 문제지의 여백은 연습장으로 활용 가능
- **답안지를 수정할 경우 교정부호를 사용하여 수정**
- **0점 처리 기준**
  - 답안지에 답 이외의 특정 표기나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시를 한 경우
  - 검은색 필기구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수정이 가능한 연필류 등으로 작성한 경우
  -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한 경우
  - 답안지의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 답안을 작성**한 경우

SEOULTECH
서울과학기술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문제 1] 다음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무릇 곡하는 데도 역시 도(道)가 있소, 대체로 사람의 칠정(七情) 중에서 쉽게 움직여 감발(感發)하는 것은 슬픔만 한 것이 없소. 슬픔이 일면 반드시 곡을 하는 것인데, 슬픔이 일어나는 것도 역시 단서가 여러 가지지요. (…중략…) 모두 품은 생각이 있어서 운 것이지. 이별에 상심하고 억울한 마음을 품으며 하찮은 이로 해서 아녀자의 통곡을 흉내 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그들의 시대에 비해 더욱 말세요, 국사는 날로 그릇되고, 선비들의 행실도 날로 야박해져서 친구들 사이에 배치되는 것도 갈림길이 나뉜 것보다 더하며, 어진 선비가 고생을 겪는 것도 비단 길이 막힌 것뿐만 아니어서, 모두 인간 세상 밖으로 도망해 갈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만약 저 몇 분의 군자로 하여금 이 시대를 목격하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품게 될는지 모르겠소. 아마도 통곡할 겨를도 없이, 모두 팽함(彭咸)이나 굴대부(屈大夫)처럼 돌을 끌어안거나 모래를 품고 투신자살하고자 할 것이오. 친이 서실 편액을 통곡이라 한 것도 역시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니, 여러분은 그 통곡을 비웃지 않는 것이 옳겠소"

-허균, 「통곡헌가(慟哭軒記)」에서

(나)

"이 천지간에 이런 넓은 안계(眼界)를 만나 홀연 울고 싶다니 그 무슨 말씀이오?"

"(…중략…) 사람들은 다만 안다는 것이 희로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慾) 칠정(七情)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은 모를 겝니다. 기쁨[喜]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되고, 노여움[怒]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즐거움[樂]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되고, 사랑[愛]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미움[惡]이 극에 달하여도 울게 되고, 욕심[欲]이 사무치면 울게 되니, 답답하고 울적한 감정을 확 풀어 버리는 것으로 소리쳐 우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소이다. 울음이란 천지간에 있어서 뇌성병력에 비할 수 있는 게요."

(…중략…)

"갓난아이는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여 먼저 울어서 제 조문(弔問)을 제가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갓난아이의 본정이 아닐 겝니다. 아이가 어미 태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는 어둡고 갑갑하고 얽매이고 비좁게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탁 트인 넓은 곳**으로 빠져나오자 팔을 펴고 다리를 뻗어 정신이 시원하게 될 터이니, 어찌 한번 감정이 다하도록 참된 소리를 질러 보지 않을 수 있으랴! 그러므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마땅히 본받아야 하리이다."

-박지원, 「통곡할 만한 자리」에서

(다)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그믐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낮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곽재구, 「사평역(沙平驛)에서」

(라)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메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헌 삿을 깐,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딜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디두 않구 자리에 누어서,
머리에 손깍지 벼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꽉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턴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 쯤 해서는,
더러 나줏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 섶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가)와 (나)의 '울음의 해석'을 이용하여 (다)와 (라)의'눈물'의 차이에 대해 쓰시오. 단,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가)는 (다)와, (나)는 (라)와 연결하시오. (600±30자로 작성하고, 단락 나누기를 하지 마시오.)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www.LegendStudy.com

[문제 2] 다음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초기에 대중 매체는 이른바 '포박된 수용자들'에게 치명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탄환에 자주 비유되었다. 이 관점에 의하면 대중 매체의 메시지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혀 쓰러뜨리는 탄환처럼 수용자 대중에게 직접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갖는다. 수용자는 매우 수동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대중 매체의 효과를 피할 수 없다. 제 1차 세계 대전 당시 각국의 치열한 선전술과 라디오를 통한 히틀러의 선전은 대중 매체의 영향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가져왔다. 특히 1938년에 미국에서 방송된 라디오 드라마 '우주 전쟁'은 대중 매체의 강력한 효과에 대한 당시 학자들의 우려가 아주 근거 있어 보이도록 한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나)

뉴욕의 독신녀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한 편이 크게 인기를 끌면서 한국 젊은 여성들의 소비에 불어넣은 뉴욕 바람은 거의 광풍에 가까웠다. 드라마 속 뉴요커들이 카페에서 즐기는 아침 겸 점심을 의미하는 '브런치'의 모습은 젊은 여성들이 즐겨 찾는 거리 곳곳에서 그대로 재현되었다. 또한, 드라마 속에서 여주인공이 뉴욕의 벤치에서 즐겨 먹던 컵케이크와 커피 역시 선풍적 인기를 얻었다. 월세를 낼 돈은 없어도 마음에 드는 명품 구두와 옷은 꼭 사야만 하는 여주인공의 캐릭터 때문에 한국 여성들에게 생소했던 브랜드의 구두나 가방이 한국에서도 불티나게 팔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처럼 되기 위해 드라마 속에 나오는 명품을 걸치고, 그들의 스타일을 따라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다)

팬덤이란 특정 인물이나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나아가 그 인물이나 분야에 대해 가진 '팬 의식'을 일컫는다. 열광적 애호가, 광신자를 뜻하는 fanatic의 준말 'fan'과 한 사회의 습성이나 기질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dom이 합성되어 팬덤이라는 용어가 탄생했다. 팬덤 문화는 주류 문화의 주변 문화로서 지배적인 가치나 윤리적 체계에 맞지 않는 이미지, 또는 문화 중독자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팬들의 활동은 단순히 연예인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거나 그들과 관련된 문화상품을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과 관련 있는 음악, 드라마, 영화, 사진 등을 재구성하거나 변형하여 블로그나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적극적인 활동은 물론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이름으로 사회에 기부하기도 하고 봉사활동에 나서기도 한다.

(라)

이메일, 원격 회의, 채팅과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우리는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이를 즉각적으로 주고받는다. 또한 인터넷의 익명성은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촉진시키는 요소가 된다. 이처럼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종래의 언론 매체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던 사용자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정보 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소수나 사회적 약자에게도 자유로운 발언의 기회가 생기고 의사소통의 장이 자유롭게 열림으로써 인터넷은 대면적인 소통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참여와 소통이 가능한 장소를 제공한다.

(가), (나), (다), (라)를 모두 활용하여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과 비판적 수용의 자세'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시오. (600±30자로 작성하고, 단락 나누기를 하지 마시오.)

[문제 3] 다음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장 경제에서는 사회의 희소한 자원 배분을 시장의 자율에 맡겨 놓는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 가격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원 배분을 시장에 맡겼을 때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것을 시장 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나)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이유는 시장의 힘을 제약하고 왜곡하는 많은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시장 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외부 효과를 들 수 있다. 외부 효과란, 한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지불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외부 경제는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이익을 주지만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이며, 외부 불경제는 다른 경제 주체에게 손해를 끼치면서도 그에 대해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사례>

외부 불경제: 양식업을 주로 하는 어느 마을에 공장이 들어서 폐수를 방출하면, 마을의 물은 금방 더러워지고 양식장의 고기는 병들어 죽게 된다.

외부 경제: 양봉업자가 과수원 옆에서 양봉을 하는 경우, 양봉업자는 과수원 덕분에 더 많은 꿀을 얻을 수 있어 이득을 보지만, 과수원 주인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다)

시장 경제는 가격의 기능에 의해 정부의 계획이나 명령 없이도 시장에서 자원의 배분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시장 경제가 운영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다. 시장 경제는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좇아 생산, 교환, 소비, 직업 선택, 계약 등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의 보장이라는 기반 위에 서 있다. 경제적 자유의 실질적인 향유와 재산권에 대한 보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개인이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사유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그리고 헌법 제 23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라)

홉스는 개인의 자연적 욕구나 본능에서 도덕적 행동의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 보존의 욕구를 무제한적으로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이다. 그 결과 자연 상태에서는 부정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인간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빠져 각자의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자연 상태의 불완전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절대적 권력(리바이어던)에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고, 이 권력이 제정한 법과 규범에 따르기로 사회계약을 맺게 된다. 리바이어던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괴물로서,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매우 강한 동물을 상징한다. 홉스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절대적 통치 권력, 즉 국가를 이 동물에 비유하였다.

(가), (나), (다), (라)를 모두 활용하여 <보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글을 작성하시오. (600±30자로 작성하고, 단락 나누기를 하지 마시오.)

<보기>

공유지의 비극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 주는 현상이 환경 오염이다. 사람들이 물이나 공기를 깨끗하게 쓰지 않고 공공 자원을 앞다퉈 개발해 자연은 황폐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지면서 이상 기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